

봄이 오는 지리산...‘매화’ 앵글에 담아볼까요

‘6회 홍매화·들매화...사진 콘테스트’ 열려

● 27일부터 프로 전문가·휴대폰 카메라 부문

“자연과 문화 속 치유받는 힐링 공간” 포석

지리산 내 고찰에서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홍매화와 들매화 사진찍기 대회가 올해로 여섯번째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대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오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1일 동안 ‘꽃피는 순간, 꿈이 피어난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제6회 홍매화·들매화 프로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콘테스트는 프로 전문가 부문과 휴대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2026년에 촬영한 홍매화와 들매화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총상금은 1000만원 규모로 확대됐다.

사진 출품은 화엄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홍매화 콘테스트’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1인당 2컷까지 출품할 수 있다. 개인, 무허가, 무보험 드론 촬영은 금지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촬영은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을 위해 촬영 1주일 전까지 종무실에 신고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 수상작 및 출품작의 저작권은 화엄사와 구례군에 귀속되며, 개인적으로 활용 시에는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심사 기준과 수상 내역은 화엄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콘테스트 심사 결과는 오는 4월 27일 오전 9시

화엄사 홈페이지와 언론사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 오전 10시 화엄사 각황전에서 열린다. 홍매화 개화 상황은 화엄사 홈페이지 Live Cam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오전 7시, 오후 8시) 중계된다.

화엄사는 이번 콘테스트 행사와 함께 ‘홍매화’ 헌정 노래 음원도 발표한다. 헌성 그룹 라나에로스프의 마지막 멤버로 알려진 심어솔라이더 김희진이 작곡을, 강원석 시인이 작사를 맡았다. 이 곡은 지리산대화엄사의 시그니처 국가유산인 홍매화의 고유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음원은 이미 발표했으며 3월 21일 홍매화 콘테스트 개막식에서 김희진이 직접 들려줄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홍매화 빵 판매와 홍매화 꽃잎 모양의 소원지에 소망, 합계, 사랑, 기원 등 소원하는 내용을 적어 거는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구례지역 자활 청소년 육성기금과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된다.

프로 전문가 부문 대상(총무원장)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300만원 및 상품이, 휴대폰 카메라 부문 교구장스님상 1명에게는 상장, 상금 100만원 및 상품 등이 각각 수여된다.

우석 주지스님은 “전 주지 덕문 스님이 2021년부터 시작한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가 구례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출발해, 이제는 구례 주민의 자랑이자 자긍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화엄사는 종교를 넘어 국민들이 자연과 문화 속에서 휴식하고 치유받는 문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화엄사 성기흥 홍보기획위원장은 “홍매화 만개 시기는 예년과 같이 3월 20일부터 30일 사이

로 예상되지만, 해발 450m에 위치한 고목 특성상 기상 여건에 따라 행사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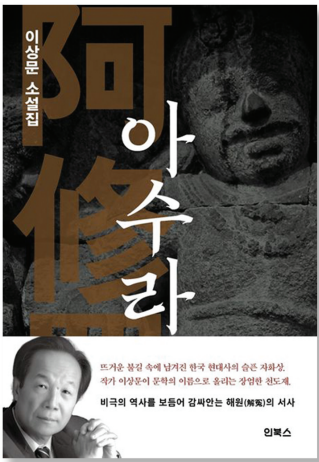
지난 5년간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기간 동안 연인원 100만 명이상이 방문했으며, 2025년 화엄사 홍매화 홍보 가치는 78억 4000만원으로 분석됐다. 홍매화 대상 총무원장 역대 수상작으로는

제1회 대 신승원씨의 ‘해탈에 관한 고찰’ (2021년)을 시작으로 2회 임하선씨의 ‘화엄사의 봄’ (2022년), 3회 김진관씨의 ‘안개가 휘도는 산’ (2023년), 4회 옥맹선씨의 ‘화엄매 자태’ (2024년)가 선정됐으며, 지난해 5회 때는 서재민씨의 ‘홍백의 만남’이 뽑혔었다. 문의 061-783-7600.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은 서재민 작 ‘홍백의 만남’.



인간의 화해와 치유 모색...불교적 통찰 투영

나주 출신 소설가 이상문 소설집 ‘아수라’ 펴내

“절제된 문장과 단단한 서사 구조 속 깊은 울림”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을 맡아 동문서주하고 있는 동시에 전쟁의 비극과 인간 존엄의 문제를 끊임없이 탐구해온 전남 나주 출신 소설가 이상문 씨가 신작 소설집 ‘아수라’(인복스 刊)를 최근 출간했다. 이번 소설집은 작가가 평생에 걸쳐 천착해 온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인간 본성과, 이를 보듬는 ‘불교적 자비’의 세계관이 정교하게 맞물린 작품들이 실려 있다.

표제작 ‘아수라’를 비롯해 ‘손님’, ‘불호사’(佛護寺), ‘임술’, ‘집’, ‘그 겨울의 사보텐’ 등 총 6편의 중·단편이 수록됐다. 작가는 등단 40여 년에 걸쳐 끊임없이 비극의 역사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절망하고 몰락해 버린 인간의 화해와 치유를 모색해온 가운데 불교적 통찰로써 생명에 대한 경외와 자비로운 구원의 서사를 형상화해 문학적 깊이와 다채로움을 더해왔다.

작가는 이번 소설집 전반에 걸쳐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을 서사 구조의 근간으로 삼았다.

먼저 표제작인 ‘아수라’는 반세기 전 해의 파병전쟁(남로국)의 군수지원사령부 소속으로, 사망한 군인들의 시신을 화장해 본국으로 보내는 영현

(英顯) 중대의 군법사가 머물던 불광사를 배경으로 한다.

전쟁터의 화장장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회색 연기와 참혹한 시신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아수라도’(阿修羅道)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작가는 이 지옥 같은 공간을 통해 전쟁의 무의미함과 파괴성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스러져 간 영혼들을 달래는 군법사 ‘상일스님’의 고뇌를 통해 생사의 경계를 넘어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어 수록작 ‘손님’에서는 수십 년 전의 인연이 예기치 못한 순간 ‘손님’으로 찾아오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으며, ‘불호사’는 ‘부처님이 보호하는 절’이자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절’이라는 의미를 담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생명을 보듬어 키워낸 보살 같은 인물들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역사적인 비극을 불교적 통찰로 감싸 안아 형상화해 깊은 울림과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는 솜씨가 돋보인다.

또 작가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한국

전쟁, 월남전 등을 다룬 ‘집’과 ‘그 겨울의 사보텐’ 등을 통해 이념의 대립보다 상위에 있는 ‘인간적 유대’와 ‘보은’(報恩)의 가치를 조명한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는 작가 특유의 온기 가득한 서사는 독자로 하여금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끌어안아 치유하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문학평론가 장영우 명예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해설을 통해 “이상문 소설의 미덕은 사건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한 인간이 짊어진 기억의 무게를 끝내 독자의 내면까지 끌어들이는 데 있다. 전쟁 이후의 가난, 이념의 폭력, 생존을 위한 좌절감 같은 무거운 주제들이 절제된 문장과 단단한 서사 구조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만든다. 전쟁터의 화장장 굴뚝 연기와 범당의 향연(香煙)이 뒤섞인 이 숭고한 소설집은 상처 입은 현대사를 위로하는 장엄한 천도재(薦度齋)”라고 평했다.

이상문 소설가는 동국대를 나와 1983년 4월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에 단편소설 ‘탄흔’(彈痕) 당

선으로 작품 활동 시작, 소설집 ‘살아나는 팔’, ‘영웅의 나라’, ‘숨은그림찾기’, ‘누군들 별이 되고 싶지 않으랴’, ‘이런 쟁쟁함을 일리’, ‘은밀한 배반’을 펴냈으며, 장편소설 ‘황색인’ (전 3권), ‘자유와 의 계약’ (전 2권), ‘남자를 찾아 만난 여자 그리고 남자’ (전 2권), ‘오 노’ (전 3권),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 (전 5권), ‘방랑시인 김삿갓’ (전 10권), ‘인간아 아 인간아’, ‘붉은 눈동자’, ‘잃어버린 시간’ 등 다수를 펴냈다. 장편소설 ‘황색인’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재학 중 군 입대, ‘월남전’ 파병(1970.3~1972.1), 한국 언론 사상 최초 미수교과 ‘공산화 월남’ 특파 취재, 제1차 스포츠서울과 서울신문(1990.4), 제2차 부산일보(1990.12), 기사 게재 뒤 르포집 ‘베트남별곡’, ‘혁명만 끝나지 않았다’ 등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문학상과 운동주문학상을 비롯해 동국문학상, 국제PEN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노근리평화상(문학 부문), 조연현문학상, 유심자문학상(문학 부문), 한국문학상, 영산강문학상, 표암익제문학상, 둔촌이집문학상 등을 두루 수상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설립 20주년 기념 ‘화가들 삶과 예술’ 기록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호남예술인 아카이브’...5명 영상기록 공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은 재단 설립 20주년 기념 예산을 내부 행사가 아닌, 지역 화가 5명의 삶과 예술을 기록하는 데 전액 사용하기로 해 진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재단은 최근 공식 소셜 채널을 통해 ‘호남예술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과 위주의 일회성 홍보 영상이 아닌,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지역 작가들의 ‘태도’와 ‘시간’을 공공의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 기획

됐다. 아카이브 참여 작가로는 류현자 박성희 이두환 임수영 정정임씨 등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자신들의 성과를 알릴 수 있는 20주년 홍보 예산을 과감히 지역 예술인에게 헌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화려한 행사 대신 지역 문화의 뿌리인 예술가들을 조명함으로써 ‘문화는 경쟁이 아닌 공존’이라는 재단의 철학을 행동으로 증명할 셈이다.

노경수 이사장은 “문화는 앞서기 위한 경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선택이 반복될 때 이어진다”며 “재단을 기념하는 일보다 지역 예술가들의 시간을 기록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영상은 화가 5명의 작품 세계뿐 아니라 그 이면의 치열한 사유와 삶의 결을 담아냈으며, 시민들이 지역 미술과 깊이 있게 만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호남 예술인 아카이브 프로젝트’ 영상은 지난 9일 첫 공개를 시작으로 재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rccef2005),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rccef2005),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광주문화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국비 확보

3억5300만원 ‘전국 최대’ 규모...지역예술인 55명 일자리 지원

광주문화재단이 ‘2026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으로 7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국비 지원 규모는 3억5300만원으로, 전국 운영기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지역사업)’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예술인과 기업·기관 간 협업을 통해 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직업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직무 영역 개발을 지원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기업·기관 11개소, 예술인 55명(리더예술인 11명, 참여예술인 44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직업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을 이 어갈 계획이다.

배동한 광주문화재단 사무차장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지역 기업·기관과 협업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으로 진행된 공연.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기관 및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만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일정 및 세부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